

선교 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

작성일 : 2010. 6. 13. (일) 새벽 2:30

작성자 : 정예인 (대전 대명 교회)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코치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선교 용사가 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노라.

먼저는 너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심이 중요한 것이다.
하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
나 예수도 그러하다.
너희가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나와 내 아버지가 역사하노라.
그러니 그 마음의 자세를 굳건히 잡고 가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행해야 한다.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는 결심하고 각오도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마음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생각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든지 계획만 하고 그 단계에서 끝나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결심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이 행하는 것이다.
전도도 매일 매일 꾸준히 하는 자가 결국에는
전도도 잘하게 되는 것이다.
전도가 너희의 삶이 되어라.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한다.
너희의 생각과 머릿속에
생명을 전도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생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매순간 너희 머릿속을
생명으로 채우고 살아 보아라.
그래야 의식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전도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니 내 사랑을 전하고 싶어
생명들을 전도하는데
온 힘과 열정을 쏟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전도하고자 원하는 자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여
내 심정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내 사랑과 내 심정을 받으면
사랑과 심정의 그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다.
너희 개개인이 온전히 나와 사랑으로 일체되어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생명을 잉태하듯이
너희도 나와 사랑으로 일체되어
영의 생명을 탄생시키자.

전도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생명 사랑, 생명 구원의 마음이 열렬해야 한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가르쳐서
섭리에 불러오는 것만이 아니로다.
그 생명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로다.
생명의 영, 혼, 육을 다 살피주며
어려움과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며
그 생명이 온전하게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가
지
도와주며 끝까지 관리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선생처럼 생명 사랑의 마음이
밀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 생명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때로는 부모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주어
그 생명이 이 섭리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무를 옮겨 심어놓고 그 뿌리가 땅에 제대로 정착
하여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잘 성장할 수 있듯이
생명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기에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쳐주고 관리해야
나무가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라듯이
전도된 생명도 늘 관리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전도만 해 놓고 그 생명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한다면

뿌리도 채 내리기 전에
신앙이 병들어 죽거나 신앙이 약해져
섭리를 벗어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린아이 보살피듯이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조심히 다루고
생명을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생명이 섭리 안에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박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신앙 유지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도된 생명들에게
이 시대 말씀을 제대로 깨우쳐 주고 사랑으로 관리
해주며
나 예수에 대해, 너희 선생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 손실이 되지 않고
너희가 전도한 생명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
너희도 희망으로 더 많은 자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다.

전도와 관리,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생명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 주고 가르쳐 주어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시대 내가 너희 선생 통해 전하는
재림과 휴거의 말씀, 사랑과 회개에 대해 가르쳐 주
고
나 예수에 대해 온전히 심어 주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선교가 잘 되려면 너희 먼저
내 사랑과 나에 말에 온전히 서서
불같이 전하고 나를 증거 하여라.
이 시대 말씀을 증거하고 이 섭리를 증거 하여라.
네 선생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어라.
지금은 모두가 말씀을 무기삼아 부지런히 행하고
외칠 때이다.

시간을 귀히 보고 이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해 주어
라.
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뛰었듯이
너희도 성령 받고 뛰고 달리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포기치 말고 뛰어다
오.

너희는 나의 이 시대 복음의 군사들이로다.
담대하게 외쳐다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